

19대 대통령 선거 5월 9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 ... 오전 6시~오후 8시 투표
사전투표 5월 4~5일 ... 황교안 대행 불출마

‘선택 2017’ 대선 D-54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화)로 공식 결정됐다. 그동안 출마 여부가 주목됐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3·4·5면〉

행정자치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오는 5월 9일을 조기 대선 선거일로 정하는 것을 안건으로 올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대행은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전념하고자 한다”며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며 위기 관리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두 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5월 9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하면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는 점에서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하루로 결정돼

야하고, 3월 20일 이전까지 발표돼야 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5월 8일 역시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다 보니 투표율이 낮을 수 있어 정부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상적인 대선보다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최대한의 기간을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대선 일을 5월 9일

날짜	일정
~3월 30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4월 9일	입후보 예정자 공직에서 사퇴
4월 11~15일	선거인 명부 작성
4월 15~16일	후보자등록 신청
4월 17~5월8일	공식 선거운동
4월 25~30일	재외투표소 투표
5월 4~5일	사전투표 오전6시~오후8시
5월 9일(화)	19대 대통령 선거 오전6시~오후8시

비 기간이 짧은 만큼, 최대한의 기간을 주는 것이 낫다는 판단도 대선 일을 5월 9일

로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돼야 하며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이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사전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D-30 성공기원 행사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기원 D-30 기념행사 및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15일 완도를 해변공원 특별무대에서 열렸다.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종연 군의회의장, 자원봉사자들이 손 펼침막을 들고 박람회 성공기원을 기원하고 있다. /완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피의자 박근혜’ 21일 소환... 포토라인 선다

검찰 통보, 뇌물수수 등 혐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관련기사 2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

침이어서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일

공격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 “과거 전례를 보고 잘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소환 조사 이후 뇌물수수 혐의액이 430억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연향뉴스

알립니다



‘선택 2017’ 새로운 대한민국

한국지방신문협회 19대 대선 공동 취재 보도

광주일보에 오는 5월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언론사 협의회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원사: 광주일보·강원일보·경남신문·경인일보·대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전북일보)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선거운동 기간 등이 짧은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 집중 인터뷰, 여론조사, 정책 검증, 전국 판세 분석 등 다양한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갈등과 혼란, 대립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집중 토론회 ...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적인 고통과 혼란을 겪으면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각 당의 후보자 집중 토론회와 인터뷰를 통해 정책과 비전, 자질을 꼼꼼히 살펴겠습니다. 또한, 차기 대통령이 광우와 전남, 호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 여론조사 ...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돕겠습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지난해 말 ‘2017년 신년기획 정국 현안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기 대선 시점에 전국 유권자 67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동시에 발표한 경우는 한국 정치 사상 처음입니다. 대선 기간 매머드급 여론조사는 물론 전국 판세 분석 기사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겠습니다.

공약·정책 검증 ... 건전한 경쟁의 장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건전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 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면밀히 검증하겠습니다. 국가 정책 제시는 물론 광우·전남 지역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분석을 통해 올바른 후보 선택을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光州日報社

“시도지사들과 제2 국무회의 열겠다”

한신협, 안희정 후보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신군벌발전 전략을 통해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기회를 확보하고 불균등한 교환을 하고 있는 지역의 각종 생산물에 대해서 제가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균형발전의 효과를 얻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5면〉

안 지사는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사와 한 초청토론회에서 “그동안의 균형발전정책이 인위적 규제정책이 중심이었다면, 저는 시장(경제)적 법칙으로 균형발전의 기회를 확대해 보자는 것”이라며 이 같이 역설했다.

안 지사는 또 “(당)후보가 된다면 연정추진협의체와 국정준비위원회를

당에 둘 것”이라며 “연정추진협의체를 만들어 각 정당들과 정책협의를 하고 협상안이 나오면 정부 구성에 대한 책임자를 서로 선임하고 총리 문제는 대통령 당선자와 이 정책협의체 정당 대표들과 숙의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헌과 관련 “차기정부 국가 개혁과제의 가장 첫 번째”라면서 “임기 내에 가능하면 개헌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제에 가까운 수준의 자치분권을 목표로 한 자치분권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며 “제2국무회의를 만들어서 시도지사들과 운영해보려고 한다”고도 소개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
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